

로봇저널리즘 기술로 주식 투자정보제공 '엠로보'

전진욱 입력 2017-04-09 08:21 수정 2017-05-08 18:20



[스타트2030]



▲(오른쪽부터) 안상선 엠로보 CEO와 정구봉 개발자가 인터뷰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전진욱 기자

[아시아타임즈=전진욱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 퍼져있는 투기성 투자 문화를 기업의 실질적인 지표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문화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으로 엠로보를 만들었어요.”

지난 5일 불비가 내리는 오후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핀테크 창업지원센터에서 안상선(37) ‘엠로보(M-Robo)’ 대표를 만났다. 전날 우리은행이 지원하는 ‘위비핀테크 Lab’ 2기에 엠로보가 선발됐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터라 ‘축하드린다’는 말을 안 대표에게 먼저 건넸다. 안 대표는 멋쩍은 듯 웃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주셨다.

안 대표를 처음 본 건 지난달 우리은행에서 위비핀테크 Lab 2기 선정을 위해 진행된 본선 PT 때였다. 13개의 스타트업 가운데 마지막 발표 주자였던 그는 뛰어난 말솜씨와 여유로움이 인상적이었다. 그에게 5분이라는 짧은 발표 시간은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해 보였다.

안 대표가 엠로보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부터 이미 다수의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미디어 해커톤’이라는 스타트업 대회에서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탄생한 엠로보는 매경 그룹의 사내벤처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스타트업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엠로보는 코스콤이 주관한 ‘핀테크 금융 API 해커톤’ 대회 수상과 국제 핀테크 대회에서 세미나피널을 진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이름을 알렸다.

엠로보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사를 왜 사람이 써야 할까”에서 시작됐다. 이에 안 대표는 텍스트를 데이터화 시키고 인공지능(AI)을 미디어 접목시킨 로봇저널리즘 기술을 만들었다. 로봇저널리즘을 쉽게 정의하면 로봇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 주는 것을 뜻한다. 이 기술은 소셜네트워크(SNS), 스마트폰 등에 밀려나고 있는 신문업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엠로보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식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우리은행과 손을 잡았다. 현재 엠로보는 중소형주 중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일경제 속보 기자들에게 4매 분량의 투자 정보 기사를 매일 제공하고 있다.

안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 중 시가총액 1~100위까지의 일일 거래량이 전체 총모 거래량의 8%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나머지 92%를 차지하는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정보가 개인투자자에게는 중요하죠.”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의 인력은 한정돼 있어요. 요즘에는 인력을 더욱 줄이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증권사들은 주가가 비싸고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에 대해서만 보고서 형태로 투자 정보를 제공해요. 증권사마다 스몰캡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지만 92%를 차지하는 모든 중소형주를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엠로보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종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얼핏 들어보면 국내 증권사들이 준비하는 '로보어드바이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콘텐츠'라는 단어를 꺼냈다.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한 뒤 투자 정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 포트폴리오전문가(PB)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엠로보는 투자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또 엠로보의 기술이 단순히 주식투자 정보제공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자동화 시키고 기사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날씨 쪽으로 유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엠로보는 지진에 대한 정보를 받아 기사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어요.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통해 소통하지만 먹통 되기 일쑤잖아요. 엠로보는 지진이 나면 국민안전처로부터 즉시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기사화해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엠로보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는 안 대표의 눈빛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해 보였다. 기자는 문득 엠로보의 최종 목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안 대표에게 최종 목표가 뭐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이였다.



지난 5일 영등포구 우리은행 핀테크 창업지원센터에서 안 대표를 만나 엠로보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출처-진진욱 기자

"엠로보라는 파퓰어를 만들고, 여기에 주식투자라는 색을 입히면서 투자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내 주식시장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단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기성 투자 문화가 많잖아요. 엠로보를 이용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지표를 보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문화에 엠로보가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엠로보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가 사회 현상을 조금이나마 바꾸는데 내가 만든 파퓰어 도움이 된다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2030세대가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안 대표의 의견이 궁금했다. 이에 안 대표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과 무작정 취업이 어려워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요즘 2030세대가 취업이 어려워 스타트업에 뛰어들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봐요.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취업에 열정을 쏟아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현재 스타트업이 1000개 생기면 성공하는 것은 10개도 채 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학생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경험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업계에 소문이 나면 더욱 좋은 거고요. 앞으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지만 실패했을 경우 대비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진욱 편집부

[다른기사보기](#)

jwbr0908@asiatime.co.kr

[저작권] ©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 내용을 입력하세요 | |
| <input type="checkbox"/> 로봇이 아닙니다. <small>reCAPTCHA 개인정보 보호 - 약관</small> | |
| -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
| - 간단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 |
| 0 / 250 | 등록 |